동아일보 - 1935. 12. 11/ 3면/ 1단

現代思想의 混亂
思想의 性格과 小市民的 思想(四)

蘇哲仁

「헤—□」은 歷史的 □□의 根本□□의 第一은 變化라고 하엿다. 「모든 事實과 行爲 모든 □□과 □□ 及 個人의 □多한 形象은 變化가 □□하다. 人間은 □□와 □大한 것을 成□할려고 여러 가지 目的을 □立하며 그것을 □□하지만 歷史的 變化의 形象을 一□하면 벌서 그 □□은 □□□ □한다.」이와 같이 變化의 消極的 方□에는 悲哀가 □□한다. 歷史에 잇어서의 第一□□하면 生活史는 □□을 □하엿스며 모든 偉大한 것은 □□을 □하고 말엇다. 한 民族「헤—□」에 依하면—은 生産이 □□하야 그 □—□□□—에 □하면 自然的으로 死滅하며 이 自然的 死滅은 政治的 滅亡을 結果한다. 그 結果 個人의 □□은 □□를 當하며 □□性을 □□하고 個別性에 □足하게 된다. 卽 全□的 □□에서 分離하야 自己의 利益만을 □□한다. 그것은 다시 그 全體性의 □□를 一層 助長한다. 이 全體性의 □□는 思想의 否定性을 相伴한다. 이 內的 否定性이 그 外的 □力에 對立할 수 없는 데에는 더욱 主□的 內□的으로 觀念化하야 그 對立性을 喪失한다. 그 結果는 現實을 □□한다. 그것은 □□□□의 □□性에까지 結果한다. 歷史的 □□의 根本的 □□을 否□하게 되며 氣의思想中에서 獨自的 思想的 □□을 □함으로써 □□□ 뿐이다. 여기에는 思想의 再生産도 零落하고 만다.

그러나 變化의 다른 一□에는 積極的 □□이 잇다. 卽 그 □□的 □□을 否定한다. 이것은 歷史 發展에 잇어서의 □□的 □□을 意味한다. 否定性을 다시 否定한다. 여기에서 眞情한 「□□이 出現한다. 그것은 眞理의 主觀化를 客觀化시킨다. 「젊은 □□로써 새 世界의 □□을 實現하기에 □中한다.」여기에서 □□及 時代의 □□는— 「헤—□」은 말하기를 —思想의 □生을 □伴한다. 따라서 哲學은 아니 새 哲學은 恒常 危機에 出現한다고 한다. 卽 □□的 모든 것의 改革을 包含한 새 思想의 原理를 이 世界에서 實現할려고 하는 客觀的 意志와 그 發□이다. —그 客觀性의 □□的 □□— 「헤—□」은 이와 같은 危機

에 잇어서의 思想의 否定性을 다시 否定하는 것을 「思想의 □□」이라고 하엿다. 이것 □□□的 □□가 第一 明確하게 □□한다. 自由主義思想까지도 언제는 活用을 하지 못하게 되니 思想은 그 □□力을 全然 喪失하고 말엇다. 그런 故로 生□된 □□ □□ 觀念 及 思想의 모든 觀念□□에 對한 發生及 그 關係를 說明함에 잇어서도 그 觀念的 表現은 그 生□關係의 歷史的 □□에 依한 그 反映임에도 不拘하고 다만 抽象的으로 內容없이 固定化한 形式만을 形而上學的으로 絶對的으로 □□하니 그 사上은 一片의 單純한 抽象的 論理□ 「知識」에 不過하다. 小市民□及 □□□은 그 □□에 依하야 現實的 歷史的 發展에 對하야 가장 □□的 □□的 思想과 知識을 所有하엿다고 自□한다. 그러나 그것은 極히 常識的이며 ―大部分은 ―技術的이다. 例를 들면 辯證法에 對하야서도 그것을 外□的으로 抽象的으로 論함으로써 公式化하기 때문에 그 □要한 本質的 發展性을 □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否認까지 한다. 그러나 辯證法은 運動 變化를 土臺로 한다. 그것은 歷史的 社會的 自然的 運動은 辯證法的이기 때문이다. 또 辯證法的 運動을 □□하는 것은 서로 矛盾되는 二□□의 共存이며 兩者의 鬪爭 아니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새 範疇로 聯合된다. 그러나 小市民的 思想은 그 聯合되기 前의 二□□을 그 相對性을 形而上學的으로 絶對視하기 때문에 相對主義的이며 그 結果는 □□的이다. 萬一에 그것을 綜合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公式的이기 때문에 相對性은 □□□지 實存□□이다. 小市民的 思想의 그 內外的 苦□은 여기에 그 本質的 結果와 □行한다. 獨逸에 잇어서의 「□쇼」運動과 小市民層 及 知識層과의 關係에서 明白히 表示되는 것과 같이 □明한 □性的 知□에 依하야 現實의 모든 不合理를 克服하려고 함에 잇어서 絶對的 「理性의 □力」으로써 一大 飛躍을 □行하엿다. 그들에게 잇어서는 理性이 모든 것을 解決한다. 絶對的 理想主義는 이것을 反映함이며 ―伊太利의 絶對的 新理想主義는 그 一例―그것은 形而上學의 復興及 行動主義의 出現에까지 이르럿다. 政治的으로는 「□쇼」的 權力獨裁로 化하며 眞理는 歷史的 運動 及 現實的 □□에서 全然 □□되므로 남는 것은 觀念的 王國의 幻影 뿐이다.

絶對的 理性은 □性的 對立의 二律背反을 止揚하나 그것은 公式的이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除去되지 아니하엿다. 그것은 抽象的으로 □念的 形式的 □□性만 重要視하고 「具□的인 것에 잇어서의 □□性을 度外視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解決의 最後의 열쇠(□)를 現實的 發展에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긔에는 또 神의 □理의 歷史가 □□되고 만다. ―最近에 잇어서의 宗敎 復興 及 □□□□의 □生은 이것을 □□한다. 이것과 □行하는 것은 平等의 觀念이다. 그것은 □의 □理에 依한 것 만치 歷史의 □□發展 過程을 無視하는 絶對 平等(!)을 絶叫한다. 그러나 歷史□□에 잇어서는 「한 時代에는 □□品이엿으나 그것이 다른 時代에 잇어서는 새 生産의 □□에 不過하

며……」「□世代의 것을 □□한 結果가 다음 世代에서 改革된다」

自由도 近代 特産物의 一이지만 絶對的 自由는 도로혀 □한 者를 拘束할 뿐이다. 卽 □□時代에 잇어서 —勿論 다른 時代에 잇어서도 그러하지만 —奴隸制度를 承認 함도 自由의 □□이엿으며 그 後 奴隸制度를 打破 함도 自由의 □□이엿다. 神의 □理는 現代科學을 否認한다. 勿論 必要에 依하야는 科學과 妥協하나 그것은 科學을 歪曲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宗敎 自體를 否認하게 되는 自家 撞着에 빠지기 때문이다. —朝鮮의 封建思想 打破期에 잇어서는 科學을 武器로 하엿으나 今日에 잇어서는 도로혀 民衆의 科學的 發達을 阻害하게 되엿으며 그것은 現朝鮮에 잇어서 「社會癌」이 되고 말엇다.